

단원들 재평정 전면 거부·시 상대 손배 청구 불협화음 광주시향 걱정된다

일부 단원 "평가방법 불공정·전형위원 만장일치 답합 의심"

市 "평가 일정 예정대로 진행... 문제 해결위해 언제든 대화"

광주시립교향악단(이하 광주시향)이 표류하고 있다.

재평정 대상이었던 광주시향 일부 단원들이 '불공정한 평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평정을 전면 거부, 향후 광주시향에 어떤 후폭풍이 몰아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상임지휘자 선정에 대한 반발, 집단 오디션 거부, 정기연주회 취소 등을 거치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KBS교향악단 사태를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클래식 팬들이 많아 광주시향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해당 단원들이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대립 양상이 장기전으로 치달을 수 있어 시와 문예회관 등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지휘자와 시향 단원들 모두 이번 일로 인해 연주회가 영향 받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립이 장기화될 경우 결국 '연주의 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기평정 어떻게 진행됐나=시립예술단체 단원들은 시립예술단 운영규칙 21조에 따라 매년 1차례 정기평정을 받도록 되어 있다. 정기평정은 예능평가(70점)와 근무실적평가(30점)로 구성되며 예능평가의 경우 예술감독과 외지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전형위원을 구성, 평정을 진행한다. 운영규칙에 따라 국악관련악단 등 5개 예술단체 단원들은 70점 미만일 경우 재평정 대상이 되며 시립교향악단만 점수제 대신 '자격', '부적격'으로 재평정 대상을 선정한다.

지난 19일 열릴 예정이었던 재평정을 거부한 단원들은 모두 15명. 광주시향 1차 평정 결과 재평정 단원은 16명이었지만 현악주자 한명이 사퇴하면서 한명이 줄어들었다.

문예회관은 이번 평정에 지난해 평정과 관련, 단원들로부터 공정성 면에서 문제 제기를 받았던 상임지휘자 크리스티안 루드비히는 참여하지 않고 외부 인사 5명으로만 전형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해당자 15명은 연가를 내고 참여하지 않았다. 평정을 거부한 단원들은 규정에 따라 전원 0점 처리됐으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징계 처분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 재평가를 실시, 여기서도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해촉하도록 돼 있어 단원들이 3차 평정도 거부할 경우 자칫 대량 해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해당 단원들은 지난 2월말 불공정한 평정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 단원들도 '광주시립교향악단 단원'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 "정기평정 과정에서 불공정한 부분들을 예술감독과 문화예술관장 등에게 의견을 피력했으나 묵살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15명의 단원들과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해당 단원과 노조측은 4명의 전형위원이 모든 단원들에 대해 만장일치로 '자격', '부적격' 여부를 결정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제

기하고 있다. 지휘자나 전형위원회들이 답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결과라는 주장이다. 일부에서는 문예회관측이 적절한 평정 방법을 채택하지 않아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루드비히는 "끊임없이 자기 연마를 하고 실력을 높이는 게 단원의 의무"라며 "오디션이 단원들을 그만 두게 하는 게 아니고, 노력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인데 이런 일이 벌어져 답답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립합창단까지 불동 튀나=지난해 신입 예술감독 선임을 둘러싸고 한바탕 흥역을 치른 광주시립합창단 역시 4월 재평정을 앞두고 있다.

시립합창단은 지난 1월 20일 정기평정을 실시한 결과 45명의 단원중 4명이 70점 이하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3개월 이내에 재평정을 실시해야 하는 시립예술단 운영규칙에 따라 회관측은 오는 4월 12일 2차 평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불합격된 단원들은 상임지휘자가 점수를 주는 근무실적 평가에서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터무니없이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제소를 해놓은 상태라 평정 결과에 따라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평정을 거부한 단원들은 규정대로 처리한 후 나머지 평정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광주시향의 지난 평정 방식에 오히려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 이번 평정과정에서 다른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반응이 없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단원들과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희망 꿈꾸는 목각인형은 바로 우리

김선희 개인전, 23~29일 금호갤러리

작품 속 목각인형엔 무궁무진한 사람들의 감정이 담겨 있다. 팍팍한 삶에 지치고 힘겨워하다가 넘어지거나 방황하는 듯 하면서도 희망을 꿈꾸는 목각인형은 현대의 인간상을 닮았다.

김선희씨가 23일부터 29일까지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꿈꾸는 목각인형'이라는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금호갤러리의 '영 아티스트' 전시 공모에 선정되면서 이뤄진 개인전으로, 지난 2009년 첫 개인전 때 선보인 작품을 비롯, 최근까지 작업한 성과물 31점을 한 자리에 모아왔다. 그만큼 목각인

형을 통해 현대의 인간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작가의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자리다.

'상그리라', '휴머니즘을 꿈꾸며', '파라다이스' 등의 작품은 작가가 추구하는 사랑과 희망, 행복한 이상 세계가 다양한 목각인형의 몸짓으로 그려지고 있다. 의도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화면을 나누거나 빛의 효과를 이용해 시선의 흐름을 만드는 방식의 시도도 엿보인다.

어렵게 느껴지는 현대 미술과 작품이 관람객들에 쉽게 전달됐으면 하는 의도로 관객에게 전시용 아트 수첩을 나눠



'파라다이스 III'

주는 배려도 눈길을 끈다. 문의 062-360-8436.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친구·제자들과 함께 클래식 봄나들이

첼리스트 배상철 회갑기념 음악회 내일 문예회관

첼리스트 배상철 목포대 교수가 올해 회갑을 맞았다. 오랫동안 정을 나눈 친구, 후배, 제자들이 축하 잔치를 마련했다.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이 가득한 연주회다.

22일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리는 '친구·제자들과 함께하는 배상철 교수 회갑 기념 음악회'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구성됐다.

배교수가 첼로를 처음 잡은 건 중학교 3학년 때였다. 초등학교 때 KBS 어린이합창단에서 활동하며 노래를 좋아했던 소년은 변성기가 오자 깊은 음색의 첼로를 선택했고 45년을 함께했다.

"제자, 후배들이 꼭 회갑 기념 연주회를 하면서 자리를 마련해줬습니다.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함께 음악을 연주해주고, 또

축하까지 해주니 저에게 더 없이 행복하죠." 배교수는 이번 연주회에서 모차르트의 '플루트 사중주 다장조', 슈베르트의 '피아노 5중주 송어' 등 실내악곡을 연주하며 솔로곡 '콜리드라이' 등도 선사한다.

또 제자들로 구성된 30여명의 첼로앙상블은 파벨의 '개는'을 들려준다.

"저를 포함한 전 출연진이 함께 연주하는 마지막 곡이 '마이 웨이'예요. 노래 제목처럼 걸어왔던 제 길을 또 걸어가야겠죠. 첼로라는 한길을 묵묵히, 꾸준히 달려온 것처럼요. 연주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죠."

오랫동안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배 교수는 학생들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타고난 재능도 중요하지만 노력만큼 중요한 게 없죠. 전 노력이 60% 이상이라고 생



각해요. 후배들이 지구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연주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땅을 파내려가면 언젠가 우물을 발견하고, 거기서 시원한 물을 만나게 되죠. 기본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은 기초 중 기초이구요." 문의 061-450-6050.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단원들의 재평정 거부, 지휘자와의 불화 등으로 광주시립교향악단이 표류하고 있다.

그림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

광주대 평생교육원 유화반 23~29일 금호갤러리서 전시

광주대 평생교육원이 23일부터 29일까지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그림 속 행복'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는 평생교육원 유화반 수강생들이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자리로, 이신숙 지도 교수의 도움을 받아 차규석·최민·허경숙·정난주 등 20명이 참여했다. 유화반 수강생들은 지난 2009년 이후 세 차례의 그림전을 여는 등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림을 그리는 순간에는 일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행복함을 느꼈다"는 수강생들의 말처럼 '노을', '금일도 스케치', '정원', '비밀의 정원' 등의 작품에는 자연 풍경의 아름다움과 평화로움을 엿볼 수 있다. 일반인들의 작품 전시라는 점에서 뜻 뜻함과 신선함도 묻어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사라 작 '타사의 정원'

www.geums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계절별미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떡국정식(기본3인이상) 15,000원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기본 3인상 이상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최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Be natural Be delicious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유스퀘어 사우나 24시간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파치마사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용원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